봄 관광시즌 코로나 '비상'

최근 이동량 증가 속 6일 확진 판정 3명 모두 관광객
도방역당국 "도민 확진도 여전… 가족감염도 잇따라"

봄을 맞아 제주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관광객이 잇따르고 있다. 또 제주도민의 경우도 가족간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 6명(637~64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642명으로 늘었으며, 올들어서는 2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6명 중 3명은 제주에 여행을 온 관광객이고, 나머지 3명은 제주도민으로 가족사이다.

이중 637번만 전남 도방역당국에 의해 공개된 확진자이며 나머지 5명은 지난 6일 밤부터 7일 오후 사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637번은 지난 1일 확진된 630번의 가족이다. 630번은 제주 입도 과정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당시 630번은 637번을 포함해 가족 5명과 지난 1일 제주에 왔다.

638번은 모 시설에 격리돼 머무는 중 지난 5일부터 두통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이튿날 확진됐다.

638번은 지난 4일 확진된 634번의 일행이다. 634번은 서울시 노원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일 여행 목적으로 638번을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왔다.

638번도 격리시설에 머물던 중 지난 6일부터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639번도 제주 여행객이다. 639번은 지난 1일 울산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틀 뒤인 지난 3일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에 여행을 왔다. 639번은 제주에 여행을 온 지 사흘째인 지난 5일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이튿날 진단검사를 받았다. 639번과 여행을 함께 온 일행은 이미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도방역당국은 639번이 제주여행에 나선지 사흘째 되던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639번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640~642번 등 3명은 도민이다. 이들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머무는 가족 A씨가 확진되자 진단 검사를 받고 7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의심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640~642번을 포함한 지인 2명과 함께 지난 5일 경남에 갔다. 이중 640~642번과 지인 1명은 당일 제주에 돌아왔고, 나머지 지인 1명과 A씨는 경상남도에 머물고 있다.

640~642번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기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 2일 사이로 제각각이다. 따라서 누가 맨 처음 코로나19에 감염돼 전파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도 관계자는 "봄을 맞아 이동량이 많아지는 가운데 제주 여행객 확진에 더해 가족간 전파에 의한 감염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불법 주차로 사라진 자전거도로 맑은날씨를 보인 7일 제주의 섬 중 하나인 가파도에 가려는 도민과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인근 자전거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찼다. 강희만기자

"팬데믹·저출산 등 교육변화에 대응"

도교육청, 중장기 미래교육 전략·과제 용역 추진

지난 2009년 발표된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 2009~2020' 이후 12년만에 제주교육 중장기 계획인 새로운 제주미래교육비전이 수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저출산 등 급변하는 미래를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용역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맡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용역비 5000만원)된다. 착수보고회는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미래교육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인간상을 담은 비전과 그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도출을 통해 제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도민 참여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민여론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진은 제주도 교육 현황과 특성 분석 및 국내·외 미래교육 연구동향 탐색 등을 통해 제주미래교육 비전과 정책 목표를 비롯 비전 실행을 위한 분야별 전략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해 11월 제주미래교육 비전을 선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모아 미래 변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제주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겠다"며 "미래교육비전이 제주교육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밝히는 '교육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교육 가족들의 많은 관심·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 관광공사, 코로나 덮친 2020년 제주관광 실태조사했더니…

재방문율 높아졌지만 만족도 하락

"해외 여행길 막히자 제주 방문… 소비지출도 늘어"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인들의 제주관광 재방문율은 높아졌지만, 제주여행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3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중 80%가 2회 이상 제주를 방문한 재방문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19년 69.6% 대비 10.4% 증가한 수치다. 4회 이상 방문율 역시 전년 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방문 의향은 5점 만점 기준 4.27점으로 전년 대비 0.90점 상승했다.

또 관광객들의 소비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는 50만6344원으로 2019년 46만9039원보다 3만7305원 늘었다. 이는 전체 여행객의 92.2%를 차지하는 개별여행객의 전년 대비 식음료비(12만7999원→13만0561원), 숙박비(7만9310원→11만5036원), 차량 임대비(3만6148원→5만6240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체류일수도 평균 4.17일로 나타나 2019년 대비 0.62일 늘었다.

제주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주가 해외여행의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어 관광객은 예전보다 체류기간은 길어지고, 그에 따라 식음료비, 숙박비, 차량임대비 등 지출비용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제주관광 만족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96점을 받아 2018년 4.10점, 2019년 4.0점에 이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이 제주관광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관광 생태계의 흐름에서 본 조사를 통해 심도 깊은 제주관광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방문 관광객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광지 방역에서도 제주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신창리 해역 3차 수중발굴조사 시작

문화재청 "선박 잔해 등 조사해 해상교류 상황 규명"

중국 남송(1127~1279)대 유물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역에 대한 3차 수중발굴조사가 시작됐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제주박물관은 7일 개수제 행사와 함께 제3차년도 공동 수중발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수제는 수중발굴조사 시작을 알리는 제사를 말한다.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금제유물이 처음 발견·신고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1990년대에는 중국 남송 시대 도자기도 발견됐다.

첫 발굴조사인 2019년에는 남송대 도자기와 함께 '삼가 봉한다'는 의미의 '謹封(근봉)' 글자를 새긴 인장 등 목제 인장 두 점이 확인됐다.

이어 2020년 2차 조사에서는 중국 선박에서 사용한 길이 310㎝, 무게 586㎏의 대형 닻돌이 발견됐다. 이 유물들은 신창리 수중유적이 중세 중국 무역선이 난파되는 과정에서 형성됐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3차 발굴조사에서는 중국 닻돌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신창리 수중유적에 남아있을 선박의 잔해 등을 조사해 과거 해상교류와 무역상황을 규명할 수 있는 유물들을 확보할 계획이다. 발굴조사는 6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 외에도 제주도에서 과거 해양교류 유물이 발견됐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는 등 제주도 수중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